

제5차 세계과학기자컨퍼런스(WCSJ) 참가기

과학자 & 과학기자, 바람직한 상생관계는?

글 | 김희원 _ 한국일보 과학담당기자 h930811@empal.com

지난 4월 16~20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제5차 세계과학기자컨퍼런스에서 몇몇 참가자들은 ‘Are you my boundary partner?’란 문구가 쓰인 배지를 가슴에 달고 다녔다. 여기서 ‘Boundary partner’란 물론 과학이라는 경계의 안팎에 서있는 과학자와 과학커뮤니케이터의 관계를 말한다. 과학커뮤니케이터협회가 있는 호주와 달리 과학홍보, 저술 등 영역이 활성화하지 못한 우리 나라에서는 과학커뮤니케이터는 사실상 과학기자를 가리킨다. 기자로서 발표내용을 취재하고 과학자를 인터뷰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들이 과학자와 함께 어떻게 동반자관계를 맺고 과학을 커뮤니케이션할 것인가를 토론하는 컨퍼런스였다. 그런데,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과학자분께 먼저 묻고 싶다. “과학기자를 당신의 파트너로 생각하십니까?”

과학지식의 생산자와 보급자

지식사회학에 뿌리를 둔 과학기술학을 보면 ‘scientific boundary’라는 개념이 나온다. 현재 자율성과 권위를 가진 과학이라는 개념이 과학자들이 과학을 과학이 아닌 다른 것과 구분하는 경계나누기를 줄곧 해온 결과, 다시 말해 “과학은 비과학이나 사이비과학과 다르고, 다른 분야의 학문 지식과도 다르며, 공학과도 다르다”는 분리작업을 꾸준히 해온 결과라는 것이다.

판사나 변호사, 의사 등도 전문인 집단으로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과학계는 유난하다. 아마도 과학자들이 과학지식을 생산하는 엄밀함이 몸에 밴데다, 과학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점점 널리 퍼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전문적인 영역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그에 걸맞은 전문성을 요구받고, 비슷한 전문인적 직업정신을 갖게 된

다. 경찰기자협회는 없지만 과학기자협회는 있으며, 영화기자컨퍼런스는 없지만 과학기자컨퍼런스는 있고, 올해의 유통기자상은 없지만 올해의 과학기자상은 있다. 과학자와 과학기자의 ‘동반자적 관계’는 이러한 배경에서 싹텄을 것이다.

세계과학기자컨퍼런스는 과학자와 동반자가 되어 해야 할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동반자적 관계가 정말 그렇게 당위적인가를 관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뉴스 보도에서 과학학술지의 역할’이라는 세션을 보자. 전반적으로 사이언스, 네이처, 셀, 랜싯 같은 유명 학술지가 신는 논문들이 중요한 스트레이트 기사로 다뤄지는지, 이 때 학술지들이 운영하는 엠바고 시스템이 기자로 하여금 보다 충실한 보도를 돕는지, 또는 특종경쟁 없이 게으른 보도를 하게 만드는지 등이 논의됐지만 과학자와 과학기자의 인식의 차이가 드러날 때마다 언론인이 가득한 청중석에선 공감의 웃음이 스멀스멀 퍼져나갔다.

호주 멜버른대학 제프 맥페든 교수는 네이처에 말라리아 기생충 관련 연구논문을 실었을 때 자신이 취재돼 보도된 일을 ‘정말 이상한 경험’이라고 소개했다. 맥페든 교수가 보여준 발표자료를 보면 그의 연구성과는 수도 없이 많은 호주의 언론에 보도됐다. 당연히 ‘말라리아 정복 가능’과 같은, 기자의 시각으로는 매혹적이지만 과학자가 보기엔 과장이랄 수 있는 제목이 달렸다. 그는 “네이처에 논문이 실렸을 때 인터뷰 폭격을 당하며 난리였다. 그런데 48시간 만에 모든 게 끝났다. 연구하는 데는 2년이 걸린 성과였는데 단 이틀 만에 잊힌 뉴스가 된 것이다. 기자들은 연구결과와는 다른 어떤 가공적인 것은 만든다. 기자는 헤드라인을 찾지 말고 과학을 좇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발표를 노골적으로 재해석하면 이쯤 될 것 같다. “2년 내내 연구해서 밝혀낸 연구성과를 기자들이 무슨 재주로 몇 줄

기사로 요약하나, 그것도 한번 보도하고 끝났다. 기자들이 순식간에 취재하고 기사를 쓰니 왜곡과 과장이 안 일어나고 배기겠다. 시간을 두고 지면을 할애해 좀 더 자세한 과학적 내용을 전달해야 제대로 된 과학기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사, 특히 제목이 연구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과장한다는 지적은 과학자들로부터 익히 들어온 터다. 또한 축약된 기사 안에서 연구성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의미만 잔뜩 들어있다는 불만도 보편적인 이야기다. 듣기만 하면 백번 옳은 말인 것 같다. 하지만 맥페든 교수가 보여준 수많은 신문 기사들과 그 헤드라인을 보면, 그저 “기사 엄청 잘 나왔는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고?”라는 심정일 뿐이다.

과학기사의 처지 엿보기

이번엔 기자의 말을 들어보자. 호주의 대표적인 일간지인 ‘더 오스트레일리안’의 레이 데이튼 기자는 과장된 몸짓과 역설적인 어투로 웃음을 자아냈다. “저널? 훌륭한 소스지. 하지만 신문 지면이 과학기사에 할애되는 양은 정말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네이처에 화성, 금성, 수성에 생물체가 발견됐다는 환상적인 기사가 있다고 말해보자. 그러면 아마 신문 뒤쪽 페이지 어딘가에 몇 문단 쓸 수 있을 것이다. 의학기사는 좀 다르긴 하다. 종종 1면에 나간다. 스트레이트 뉴스는 정치 스캔들, 경제 스캔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발언, 스포츠 경기 결과, 이런 것들과 경쟁해야 한다. 누가 이



발표장면

런 기사보다 과학기사를 더 읽고 싶어 할까? 기사가 중요한 것도 좋지만 일단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 데이터 기자의 으쓱거리는 어긋짓에는 “아무리 중요한 과학성과라도 독자(정확히는 부장)의 관심을 사로잡지 못하면 건강정보나 정치스캔들에 밀려 팔리지도 않는데, 정확하게만 쓰면 뭐하니”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과학기자가 처한 입장을 공감하려면 기자의 말은 부족하다. 언론사내에서 과학기자들이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는 데스크들의 말을 들어봐야 한다. 캐나다의 여러 언론사에서 과학기자와 편집장으로 일했던 잔-마크 플레리 세계과학기자연맹 사무총장이 가장 시니컬하다. 그의 발표는 ‘부장 국장을 피어 더 많은 과학기사를 내보내기’라는 세션에서였다. 그에 앞서 발표를 맡았던 데보라 스미스(시드니 모닝 헤럴드), 마리오 다카하시(아사히 신문) 등이 ‘훌륭한 그래픽으로 눈길을 사로 잡아라’, ‘최근 발표된 논문을 써라’ 등등 기술적 요령을 설파한 반면, 플레리 사무총장은 “그래픽이고 뭐고 일단 기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데스크 역시 기자와 비슷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데스크들은 뭐가 좋은 기사이고 아닌지 폭넓은 대강의 개념은 갖고 있다. 무엇이 독자의 관심을 끌 것인지 염두에 두고 기사를 쓰라. 모르겠으면 데스크에게 물어보는 용기라도 발휘해라. 기사만 좋으면 제목 달고, 바이라인 달고, 사진처리하지. 그래픽? 그건 간지작업이지 1면 기사용은 아니다. 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기사를 써라. 열정, 돈, 명성 이런 것 말이다.”

그의 말은 “전문성, 전문성 하면서 과학자와 똑같은 이야기 하지 말고 좀 더 설명하고, 주목을 받을 만한 기사를 내 놓아라”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그런 기사 때문에 또 다른 맥페든 교수로부터 비난을 당하든 말든 말이다. 그래서 기자는 또 다시 세상사와 관련된 주제를 찾아 나서고, 선정적인 비유를 쓰고, 과감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과학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언론사내에서 인정을 받는다. 현실에선 그 반대의 경우도 많다.

과학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언론인 시각으로는 ‘정말 좋은 기사 썼다’고 뿌듯해하는 순간 “이 부분 틀렸는데요”, “과장된 보도인데요”라는 과학자의 불만스런 반응이 적지 않은 이유를, 오랜 경험상 짐작할 수 있다. 과학계내에서 치열한 연구비 따내기 경쟁 때문에 밤샘실험 이든, 언론이든, 인맥이든 동원해야 하는 압박을 느끼는 동시

에, 언론을 타는 과학자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아니라 ‘홍보하는 과학자’로 백안시하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지식을 향해 태생적으로 경쟁적인 과학자들은 논문 투고와 심사, 재연이라는 체계적 시스템을 통해 과학지식을 축적시켜왔고, 과학지식을 대중에게 보급하는 데도 그 비슷한 시스템을 적용하고 싶은 것이라고 필자는 본다.

그러나 새로운 뉴스를 향해 태생적으로 경쟁적인 기자들도 나름대로의 뉴스제작관행을 갖고 있다. 이 관행에서 기자의 가치와 정확성은 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정확성으로 대체될 수 없다. 이 같은 차이를 분명히 인식한다면 육박지 않는 기자가 되겠다거나(모든 독자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축약된 논문으로서의 과학보도를 유도하겠다는 바람은 애초에 한계가 있다.

그래도 과학자와 과학기자가 함께 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언론계에서는 “기자과 취재원은 함께 크다”고 말한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취재 분야로 자리 잡은 IT 담당 기자들이 과학기자로 얼굴을 들이밀었다가, 산업과 발전과 함께 크게 성장하며 과학기자협회를 박차고 분리, 독립한 것이 가까운 사례다.

즐기세포 논문조작 사태 이후 과학계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과학보도에 관심이 크다.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크고 과학계가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런데 최근 과학보도는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 개인적인 경험상 세계적인 저널에 우리 나라 과학자들의 연구가 소개되기 시작한 1990년대말 이후 급격히 비중이 커져온 과학보도는 2004, 2005년 정점을 이루었다가 이후 보도의 빈도나 관심 비중이 크게 줄었다. 과학보도가 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내심 위기감이 없지 않다. 상황은 이러하다. 그래서 다시 묻고 싶다. “과학자와 과학기자는 어떤 파트너십을 맺어야 할까?” ④



글쓴이는 서울대 인류학과 졸업 후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협 동과정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 이래 한국일보에 재직하고 있다.